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준6 제5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4~9] 사회 통합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사회학적 관점들

지문 평가

개념 요소와 관점 요소가 균형 있게 결합된 통합 지문이다. 두 개의 글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연장선상에 있는 한 편의 사회 지문으로 보고 독해해도 무방하다. 단 (가)는 다양한 관점 간의 대조가, (나)는 특정 관점과 관련한 개념들이 중심이 된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사회학 - 대중문화

(가) 대중문화, 리비스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문화 상품, 윌리엄스, 정서 구조
(나) 대중, 피스크, 대량 문화, 사회적 층성, 유관성, 브리콜라주

(가)문단 1 대중문화와 이에 대한 비판

1) **대중문화**는 각종 매체를 통해 대량 생산되어 소비되는 문화이기도 하고, 상품 소비와 맞물려 일상에서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이기도 하다.

➡ 우리가 TV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매일 접하는 '대중문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생산 주체 측면에서는 매체에 의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향유 주체 측면에서는 대중에 의해 향유되는 것이란다.

2) 1940년대에는 대중문화의 산업화 경향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확산되었는데,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주요 과제로 취한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대표적이다.

❶ **맥락 짚기** 먼저 대중문화의 산업화 경향을 부정적으로 본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의 근거에 초점을 맞추어 이어지는 내용을 따라가면 되겠다.

(가)문단 2 리비스주의와 프랑크푸르트학파

1)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19세기 말 **리비스주의**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리비스주의는 엘리트 집단이 누리는 고급문화만이 진정한 문화라는 관점에서 대중문화가 무질서와 야만일 뿐이라며 폄하하는 입장에 가까웠다.

➡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존재했다. 다만 '리비스주의'는 대중문화를 산업화 경향과는 무관하게 폄하한 입장에 불과한 만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기본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선 별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2)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획일화된 문화 상품**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누구든 자발적으로 문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양 대중을 기만하지만, 대중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주어진 대량 생산물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본 대중문화 속의 상품, 즉 '문화 상품'에 대한 관점이 다. 이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대중의 수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자본주의 발전 ⇒ 획일화된 문화 상품 ⇒ 대중의 수동적 소비

❶ **주목**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생산 주체의 측면에서 대중문화가 애당초 그렇게 생산되기 때문에 대중은 수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3) 프랑크푸르트학파에 따르면 대중의 여가 시간은 **획일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대중의 **감수성이나 상상력이 퇴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대중문화는 일상생활도 잠식하여, **사적인 영역까지도 문화 산업이 제시하는 모델을 따르도록** 한다.

➡ 대중문화가 대중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구체적 내용이다. 모두가 비슷한 영상을 보고 비슷한 물건을 구입하며, 끝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암울한 세상을 떠올리면 되겠다.

4) 그 결과 대중문화는 반계몽적인 영향을 미쳐 **권력에 대한 저항의 포기**로 대중을 내몬다.

➡ 대중문화가 일상을 넘어 정치에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결국 대중문화는 대중을 유순한 양처럼 만들고, 이를 통해 권력 유지에 기여한다는 게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결론이다.

(가)문단 3 정서 구조에 주목한 윌리엄스의 관점

1) 매체가 보다 발달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50년대 이후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❶ **맥락 짚기** 지문의 흐름이 전환되는 지점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 이후, 기존의 관점들과 달리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등장했다.

2) 그중 대표적인 이론가인 **윌리엄스**는 인간의 지각이 그 자체로 창조적인 성격을 띤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일상적인 지각 행위의 과정에서도 인간은 감각을 통해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창조성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본 '윌리엄스'의 관점이다. 그는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인간의 창조성에 주목하였다. 문단2-2처럼 대중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존재로만 보는 대신에, 일상에서도 정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존재로 본 것이다.

❶ **주목**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생산 주체의 측면에서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윌리엄스는 향유 주체의 측면에서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한 셈이다.

3)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이념적 측면이 대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대중은 스스로 문화 창출의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 자본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한 것은 윌리엄스도 프랑크푸르트학파와 마찬가지로. 즉 생산 주체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맞다고 동의한 거다.

➡ 다만 대중이 그러한 부정적 영향에 수동적으로 노출된다고 본 프랑크푸르트학파와 달리, 윌리엄스는 부정적 영향이 있음에도 인간의 창조성 덕분에 자발적인 문화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4) 윌리엄스에 따르면 대중문화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대중의 정서 구조이다. **정서 구조**란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에서 공유되는 감정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집단의 신념 체계처럼 고정적,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개별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 '정서 구조'는 대중이 능동적으로 대중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다. 예

컨대 2021년의 청소년들은 같은 시대의 성인들, 혹은 1999년의 청소년들과는 구별되는 감정을 공유하며……

- 5) 대중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서 구조를 기반에 두고 그 나름의 미적 감각과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면서 별다른 문화 자원이 없이도 대중문화를 공동의 문화로 창출한다.

➡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한다. 대중은 능동적으로 대중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윌리엄스의 관점이다. 여기까지 제시된 각각의 관점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리비스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윌리엄스
대중문화에 부정적 무질서·아만으로 폄해 엘리트 문화 옹호	대중문화에 부정적 생산 주체의 측면 획일화된 문화 상품 권력에 대한 저항 포기	대중문화에 긍정적 향유 주체의 측면 문화 창출의 능동 주체 인간의 창조성 강조

➡ 이때 정서 구조를 기반에 둔 대중문화의 창출에 별다른 문화 자원이 없어도 된다는 점도 짚고 가자. 윌리엄스는 그만큼 대중의 능동적인 창조성을 높이 산 것이겠다.

(L1)문단 1 규정할 수 없는 대중의 정체성

- 1) 대중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대중문화 연구에 필수적이지만, 문화가 그러하듯 대중 역시 쉽게 규정되기 힘든 개념이다.

① **맥락 짚기** 앞서 대중문화의 속성에 대한 관점들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 볼 차례다. 대중문화에서 말하는 '대중'이란 과연 무엇인가?

➡ 이는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윌리엄스'가 향유 주체로서의 대중에 관심을 가진 것과도 분명 관련이 있을 거다.[(가)의 문단3]

- 2) 피스크에 따르면 대중은 고정된 사회학적 범주가 아니다. 청바지가 대중적이라 할 때, 계층, 인종, 연령, 종교, 교육 등과 같은 사회학적 범주로는 청바지를 입는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대중을 규정하는 문제에 대한 '피스크'의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대중의 정체성을 사회학적으로 규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컨대 대중성을 띠는 웃인 청바지를 입는 사람들한테서 어떤 공통된 성질을 추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 3) 물론 어떤 초고가의 청바지가 이를 입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계층적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으나, 피스크에 따르면 이는 청바지가 아니라 [즉 대중적인 상품이 아니라] 고급 상품일 뿐이다.

➡ 물론 200만 원짜리 청바지를 입는 사람들은 '부유층'이라는 일종의 차별화된, 공통의 어떤 계층적 정체성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청바지를 입는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2)의 관점은 반박되는 것 같지만……

➡ 이때의 초고가 청바지는 대중적 상품이 아니라 고급 상품일 뿐이므로, 대중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L1)문단 2 대중의 유동적인 속성

- 1) 피스크는 대중의 유형이 유동적이라고 본다. 기업의 의도와 달리, 상품 소비로는 대중을 동질적인 소비 집단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 이렇듯 피스크가 본 대중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성을 띤다. 즉 기업은 대중이 수동적으로 문화 상품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대중은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다.

- 2) 대중이 유동적이라는 것은 어떤 범주에 밀어 넣는다고 해도 대중

은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피스크에 따르면 청바지의 대중성이 상품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것이 아니라 대중에 의한 것 이듯, 대중은 복종하는 타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 대중의 유동성이 갖는 의의다. 이처럼 대중이 복종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 이때 청바지의 대중성이 대중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은 대중이 공동의 문화를 창출한다는 윌리엄스의 관점과 일치한다.[(가)의 문단3-5].

➡ 또한 대중이 복종하는 타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대중이 권력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다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관점과 대조된다.[(가)의 문단2-4].

(L1)문단 3 유관성에 근거한 사회적 총성

- 1) 흔히 대중문화는 대량 문화와 구분되는 것이다. 대량 문화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량의 상품으로서 문화를 유통하는 시장에서 수동적인 소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를 말하며, ……

① **맥락 짚기** 새로운 개념으로 '대량 문화'를 제시하며 이를 대중문화와 구분하고 있다.

➡ 이러한 대량 문화는 (가)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이해한 대중문화의 속성과 가깝다. 즉 피스크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대량 문화를 대중문화로 오해한 셈이다.

- 2) …… 대중문화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대중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를 가리킨다.

➡ 피스크가 본 대중문화는 창조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의 윌리엄스가 본 대중문화의 속성과 가깝다. 결국 피스크는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아니라 윌리엄스의 손을 들어 주는 셈이다.

- 3) 피스크에 따르면 대중이 대중문화의 주체일 수 있는 것은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종류의 청바지들 중에서의 선택이나, 가수에 대한 팬 문화 등에서 알 수 있듯 그들은 선호하는 것을 한시적이나마 사회적 총성의 마음으로 선택하여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 대중이 대중문화의 주체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분별과 선택을 통해 '사회적 총성'을 바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가 특정한 청바지, 특정한 스마트폰, 특정한 아이돌 그룹 등을 꼭 짚어 좋아하는 건, 수동적 소비가 아니라 대중 스스로에 의한 사회적 총성에 해당한다는 거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총성을 보인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된다.

- 4) 피스크는 [사회적 총성에 따른] 대중의 선택이, 지속적이면서도 분명한 기준인 미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관련이 있음, 즉 '유관성'을 기준으로 삼아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대중이 일상적 경험들이나 문화 자원들 간의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연결 고리를 찾아 대중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때의 유관성은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다.

➡ 대중의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피스크는 그 기준을 '유관성'이라고 본다. 단 이러한 유관성은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므로, 한때 선택받았던 대상이 얼마 뒤에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중을 동질적인 소비 집단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겠다. 또한 대중문화의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도 이러한 성격 때문이겠다.

(L1)문단 4 브리콜라주를 통한 문화 창조

- 1) 유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은 창조적이다. 그들의 문화 소비, 예컨대 청바지를 입는 것은, 유관성을 통해 그들만의 의미를 창출하는 행위와 같다. 의미를 구성하는 이는 청바지의 제작자가 아

니라 청바지를 입는 사람들[→대중]인 것이다.

▶ 문단3을 압축한 내용에 가깝다. '유관성'을 기준으로 의미를 창출하는 행위
는 곧 '창조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가자.

- 2) 피스크에 따르면 대중의 창조성은 문화 자원을 브리콜라주 하는
과정과 같다. **브리콜라주**란 자신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물체나 기호
를 만들기 위해 손수 여러 재료나 자원을 결합하는 원시인들의 일상
적인 실천이다. 오늘날 브리콜라주는 대중이 [문화] 자원으로부터 [유
관성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수단이자 방법인 것이다.

▶ 예컨대 원시인은 마모된 돌도끼를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고, 좀 더 붙잡기
쉽게 나무 손잡이를 결합해 보고, 허리춤에 매달 수 있게 끈을 연결해 본다.

▶ 피스크는 이러한 '브리콜라주' 개념을 대중의 창조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대중 또한 다양한 문화 자원들에서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연결 고리, 즉 유관
성을 발견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재료나 자원을 결합하
는 과정에서 대중의 욕구가 능동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 **주목** 이 같은 브리콜라주에는 문화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목하자. 앞
선 (가)에서 윌리엄스는 대중이 별다른 문화 자원 없이도 대중문화를 창출한
다고 보았다[(가)의 문단3-5)].

(나)문단 5 피스크에 대한 비판과 재반박

- 1) 피스크의 이론은 소비하는 자유만 주어져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피스크의 이론이 대중과 대중문화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비판'
이다. 대중문화에 불만이 많은 프랑크푸르트학파라면 이런 비판에 특히 강하
게 동조할 거다.

- 2) 그러나 문화의 주체인 대중의 힘으로 사회 변화를 추동한 다수의
실례들을 통해, 대중의 문화 소비가 그저 현실 도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피스크의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 1)에서의 비판과 달리, 오늘날 대중은 적극적으로 문화와 사회를 변화시키
기도 한다.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 영화가 제도 개선을 앞당기는 사례, 영향력
있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평화를 촉구하는 사례 등을 떠올려 보며 마무리
하자.

[10~13] 인문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소비의 모형

지문 평가

논리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지문에서 말하는 '단순한 가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만 잘 파악하였다면 이어지는 설명들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단순한 가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면 이어지는 설명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이
렇게나 중요하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서양 철학 - 단순성

오컴의 면도날, 존재론적 검약성, 구문론적 단순성, 관찰 결과에 곡선 맞추기,
소비, 직선, 포물선,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계수, 매개 변수, 예측적 정확성, 최적
가설, 가능성도, 과도한 부합

문단 1 화제 제시

- 1) 고대 이래로 과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설이 동일한 정도로 현상에
부합한다면 단순한 가설이 복잡한 가설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고 여
겨 왔다.

▶ 무작정 단순한 게 더 좋다는 건 아니다. 두 가설이 비슷한 수준에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단순한 쪽이 진리에 더 가깝다는 거다.

- 2) 그런데 '**오컴의 면도날**'이라 일컫는 이 같은 단순성의 원리와 관련
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일뿐 아니라 단순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
정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 '더 단순한 가설이 진리에 더 가깝다'는 원리는 두 가지 과제를 품고 있다.
첫째, 가설이 단순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둘째, 단순한 가설이 진리에 더 가
깝다는 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문단 2 가설의 단순성

- 1) 가설의 단순성은 가설이 동원하고 있는 개별 존재자들의 수가 아
니라 물질이나 정신 등 존재자의 종류의 개수가 적다는 차원에서
'**존재론적 검약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설 자체가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차원에서 '**구문론적 단순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 가설의 단순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따져 볼 수 있는데……

- 2) 관찰 결과들과 가설의 관계를 연구하는 현대 철학자들은 '구문론
적 단순성'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성을 규정하고 ……

▶ 현대 철학자들은 그중 후자인 '구문론적 단순성'으로 한정하여 단순성을
규정할 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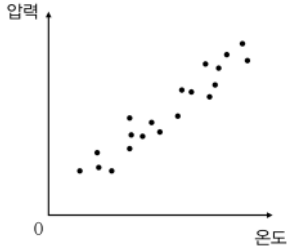
- 3) ……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관찰 결과에 곡선 맞추기**'
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 선택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관찰 결과에 곡선 맞추기'라는 방법으로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어질 테니 흐름에 집중하자.

문단 3 구문론적 단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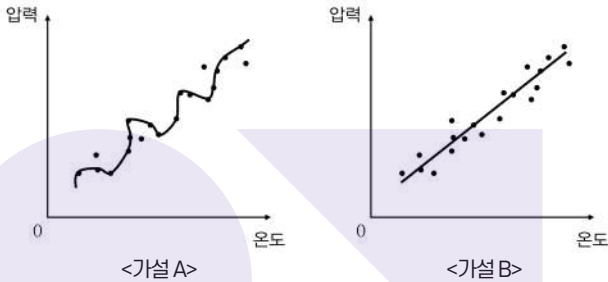
- 1) 기체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한 다수의 관찰 결과들이 있다고 하자. 온도를 가로축, 압력을 세로축으로 정한 좌표 평면 위에 개개의 관찰 결과들을 점으로 나타냈을 때, ……

➡ 문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떠올리며 읽어라. 각 각의 점이 곧 개개의 관찰 결과를 의미한다.



- 2) …… 가설 A는 좌표 위 점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하는[→ 주어진 관찰 결과들에 최대한 많이 부합하는] 복잡한 곡선이고, 가설 B는 점들을 많이 통과하지 않고 그저 점들에 근접해 있는 단순한 곡선인 직선이다.

➡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겠다.



➡ 물론 이는 '구문론적 단순성' 차원에서의 복잡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현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단순한 곡선인 가설 B가 기체의 온도와 압력 간의 관계에 대한 진리에 보다 가깝다고 본다.

➡ 결국 구문론적 단순성에서 말하는 '단순한 가설'이란 주어진 관찰 결과들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저럭 적당히 잘 설명하는 것을 의미 하겠다.

❶ 맥락 짚기 여기까지는 '단순한 가설이 진리에 더 가깝다'는 문단-1)의 반복이다. 이러한 단순성의 원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나아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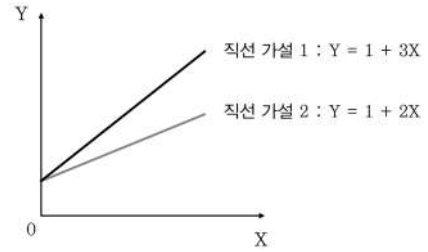
문단 4 단순성의 원리의 정당화

- 1) 통계학의 응용으로 이[→ '단순성의 원리의 정당화 문제'에 접근한 소버는, 곡선의 단순성은 개별 곡선이 아니라 곡선의 종류, 즉 직선이나 포물선 등의 차원에서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직선은 $Y=A_1+A_2X$ [→ 문단3의 가설 B], 포물선은 $Y=A_1+A_2X+A_3X^2$ 으로 표현되는데, ……

➡ 개별 곡선과, 그러한 곡선의 종류를 구분해서 읽어 나가야겠다. 소버에 따르면 '가설이 단순하다'는 것은 곡선의 종류의 차원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진술이다.

- 2) …… 여기서 X는 독립 변수, Y는 종속 변수이며, $A_1, A_2, \dots$ 등은 이 식으로 개별 곡선을 나타낼 때 계수가 대입되는 곳인 매개 변수이다.

➡ 곡선의 종류 중에서 '직선'은 전부 $Y=A_1+A_2X$ 의 형태를 띤다. 다만 각각의 개별 직선은 매개 변수[→ 직선의 경우 A_1, A_2]에 어떤 계수[→ 1, 2, 3 같은 구체적인 특정 숫자]들이 대입되는지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다음과 같이 직선 가설 1과 직선 가설 2를 비교해서 이해하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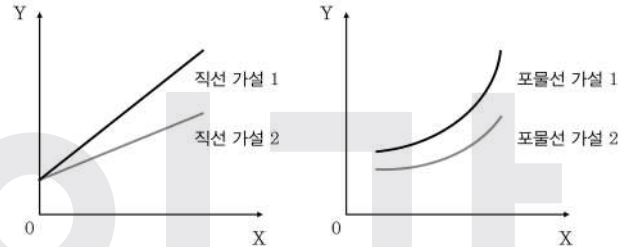


- 3) 소버에 따르면 곡선의 종류가 지닌 복잡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복잡성의 값'은 매개 변수의 개수에 해당한다. 복잡성의 값이 작을수록 단순성은 크다.

➡ 이때 '복잡성의 값'은 매개 변수의 개수에 비례한다. 이들과 단순성 간의 관계를 정리하자.

매개 변수의 개수 ↓ ⇨ 복잡성의 값 ↓ ⇨ 단순성 ↑

➡ 1)에서 곡선의 단순성이 개별 곡선이 아닌 곡선의 종류의 차원에서 적용된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다. 개별 곡선인 직선 가설 1, 2는 단순성의 측면에서는 무차별한 것이다. 둘 다 직선인 만큼 매개 변수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다. 반면 포물선 가설 1, 2에 비해서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적으므로 단순성이 더 크다.



❶ 주목 요컨대 어떤 직선이 다른 직선에 비해 더 단순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직선'이 '포물선'보다는 더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문단 5 예측적 정확성과 가능성

- 1) 소버는 통계학에서 최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개발된 기준인 예측적 정확성을 도입하여 경쟁하는 가설의 종류들 중에서 예측적 정확성이 큰 것을 [진리에 더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 소버는 이런 식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거다. "더 단순한 가설이 '예측적 정확성'이 높다면, 단순성의 원리는 정당화될 수 있다."

- 2) 직선 가설이나 포물선 가설 등과 같은 가설의 종류를 F라 하자. F의 예측적 정확성은 주어진 관찰 결과에 따라 매개 변수에 계수를 조정해 놓으며 개별적인 최적 가설인 $L(F)$ 들을 얻는다고 할 때, 이 $L(F)$ 들을 통한 앞으로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L(F)$ 들이 얼마나 진리에 가까운지]를 나타낸다.

➡ '예측적 정확성'이 정확히 어떤 값을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인데, 말이 굉장히 어려우니 천천히 이해해 보자. 개념적으로 예측적 정확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특정 가설의 종류에 대한[→ 특정 F에 대한] 개별적인 최적 가설 $L(F)$ 를 구해야 한다. 이게 무엇인지는 좀 더 읽어 봐야겠다.

- 3) $L(F)$ 는 이 가설이 참일 경우에 주어진 관찰 결과가 일어날 확률인 ' $L(F)$ 의 가능성'이 해당 F의 가설들 중 가장 크다는 의미에서 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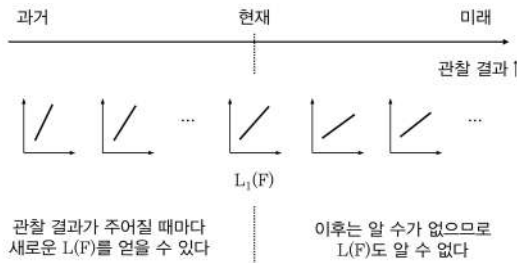
➡ F를 '직선'이라 할 때, 직선의 종류에 속하는 수많은 직선 가설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큰 직선 가설을 가리켜 ' $L(\text{직선})$ '으로 정한다고 얘기다.

➡ 이때 '가능도'란 어떤 가설이 참일 때 → 가령 어떤 가설을 기체의 온도와 압력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즉 진리에 가장 가까운 가설로 채택하였을 때, 지금까지 주어진 관찰 결과들이 얼마나 잘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 가령 문단3에서 가설 A는 가설 B보다 가능도가 높을 것이다.]

문단 6 결론

- 1) 경험적으로 얻은 값들을 통해 예측적 정확성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에 따르면, F의 예측적 정확성은 현재까지의 관찰 결과에 따른 최적 가설인 $L_1(F)$ 의 가능도가 클수록 크며, F의 단순성이 클수록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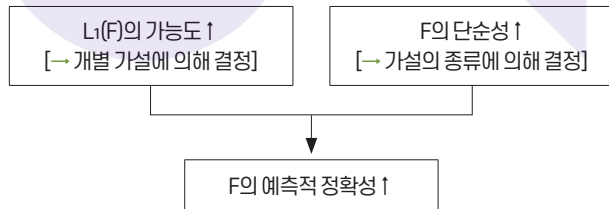
➡ $L_1(F)$ 의 의미부터 짚어 보자. $L_1(F)$ 가 개별적인 최적 가설이었다면, $L_1(F)$ 는 '현재까지의' 관찰 결과에 따른 개별적인 최적 가설이다.



➡ $L(F)$ 와 $L_1(F)$ 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관찰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L(F)$ 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모든 관찰 결과를 반영해서 그때마다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현재까지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L_1(F)$ 를 구하는 것이다.

- 2) 즉 예측적 정확성은 가설의 종류가 '관찰 결과에 잘 부합함'의 성질이 클 때에 → $L_1(F)$ 의 가능도가 클 때] 크며, 복잡성의 값이 클 때에 → F의 단순성이 작을 때에] 작은 것이다.

➡ 결론적으로 예측적 정확성은 이렇게 구해진다.



- 3) 통계적으로 계산한 결과, 복잡성의 값[→ 해당 F의 매개 변수의 개수]을 k라 하면 k의 값이 n만큼 클 때 $L_1(F)$ 의 가능도가 약 2.7의 n제곱 배만큼 커야 동일한 예측적 정확성을 지닐 수 있다. 가령 포물선 가설의 k는 3이고 직선 가설의 k는 2이므로, 포물선 가설이 직선 가설과 동일하거나 더 큰 예측적 정확성을 가지려면 $L_1(\text{포물선})$ 의 가능도가 $L_1(\text{직선})$ 의 가능도보다 2.7배 이상 커야 한다.

➡ 가령 문단4-3의 예시에서 직선 가설 10 $L_1(\text{직선})$ 에 해당하고, 포물선 가설 10 $L_1(\text{포물선})$ 에 해당한다고 하자. 직선 가설과 포물선 가설의 예측적 정확성이 같아지려면 '포물선 가설 1의 가능도'는 '직선 가설 1의 가능도'에 비해 2.7배 나 커야 한다.

- 4)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는 단순한 가설이 복잡한 가설보다 진리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음을 보였다.

🔍 **맥락 짚기** 이렇게 문단2-3에서 제기한, 가설의 단순성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일에 이르렀다.

➡ 3)까지의 설명을 고려했을 때 직선 가설[→ 단순한 가설]과 포물선 가설[→ 복잡한 가설]의 가능도가 비슷[→ 두 가설이 동일한 정도로 현상에 부합]하더라도, 예측적 정확성은 '단순한 가설'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 5) 소비에 따르면 관찰 결과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찰 결과들에 지나치게 잘 부합하는 가설은 '과도한 부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매우 복잡한 곡선이 주어진 관찰 결과에는 더 부합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과도한 부합'이어서 실제로는 예측적 정확성이 낮은 것이다.

➡ 그렇다면 '복잡한 가설'[→ 주어진 관찰 결과에 최대한 잘 부합하는 가설]의 예측적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어진 관찰 결과가 100%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주목** 관찰 결과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오류까지도 고려하다 보니 복잡한 가설은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감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형성

지문 평가

무엇보다도 정보량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문에 내포된 원리는 명료하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형성 과정을 제대로 구분하기만 했어도 지문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어려운 글일수록 포기하는 대신에 끝까지 매달려 볼 수 있어야 한다. 독해력은 쉬운 글만 편식해서는 늘지 않는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리학 - 기억 형성

신경 세포, 세포체, 가지 돌기, 축삭 돌기,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 시냅스 전막, 시냅스 후막, 단기 기억, 대뇌 측두엽, 해마, 칼슘 통로, 칼슘 양이온, 소포체, 글루타메이트, NMDA 수용체, 시냅스 연결, 일산화 질소, 도파민, 대뇌 전두엽, 장기 기억, PKA 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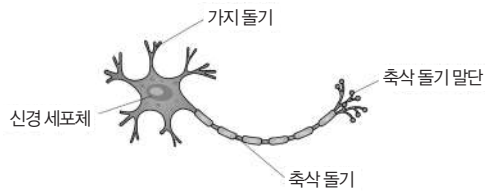
문단 1 신경 세포의 구조 및 정보 전달

1) 기억은 '대뇌의 신경 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 세포의 구조'와 '신경 세포들 간의 정보 전달'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앞으로의 진행을 안내하는 친절한 시작이다. 기억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신경 세포의 구조'와 그것들 간의 '정보 전달'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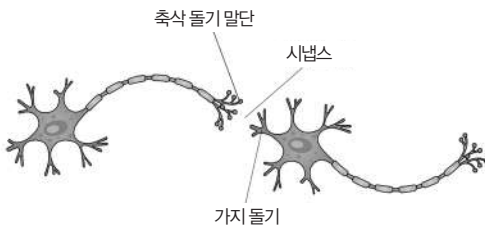
2) '신경 세포'는 중심부인 '세포체'에서 '가지 돌기'와 '축삭 돌기'가 뻗어 나온 구조를 띤다.

➡ 다음 그림과 같이 생겼다는 거고……



3) 감각 기관을 통해 대뇌로 전달된 정보들은 '신경 세포들'을 거치며 전달되는데, 이는 '축삭 돌기' 끝부분에 돌출된 여러 '축삭 돌기 말단'에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미세한 간극인 '시냅스'를 거쳐 다른 신경 세포의 '가지 돌기'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은 결국 그에 대응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양상도 분명히 해 두자. 순서를 반대로 기억해 두면 큰일 난다.

4) 이때 '축삭 돌기 말단'의 세포막을 '시냅스 전막', '가지 돌기'의 세포막을 '시냅스 후막'이라고 한다.

➡ 이 두 세포막이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작용을 하는지는 아무래도 좀 더 읽어 봐야겠다.

문단 2 단기 기억의 형성

1) 대뇌로 전달된 정보들 중의 일부가 '수 분' 내지 '수십 분' 이내로 짧게 지속되는 것을 '단기 기억'이라 하며, 이는 주로 '대뇌 측두엽'에 위치한 '해마'에 저장된다.

① 맥락 짚기 문단에서 '신경 세포의 구조'와 '신경 세포들 간의 정보 전달'에 대해 기본적으로 설명했으니, 본격적으로 '기억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 나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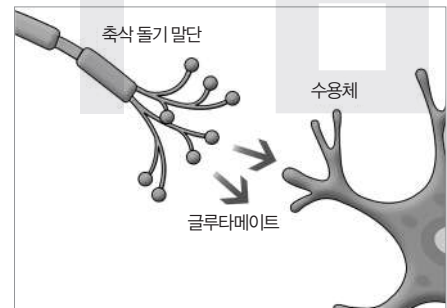
➡ 먼저 '단기 기억'이란 '해마'에 저장되는 것으로, 이름 그대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

2) 정보가 '해마'에 있는 '신경 세포'의 '시냅스 전막' [→ 정보를 전달하는 '축삭 돌기 말단'의 세포막]에 도달하면, '시냅스 전막'에 분포된 '칼슘 통로'가 열리며 '신경 세포들' 사이의 외부 빈 공간에 있던 '칼슘 양이온'들이 막 내부로 이동 [→ 시냅스 전막에 유입]한다.

➡ '칼슘 양이온'이 처음부터 '축삭 돌기 말단'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감각 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정보가 '해마'의 '신경 세포'에 도달하였을 때, 비로소 '칼슘 통로'를 통해 유입되는 것이다.

3) 이 '칼슘 양이온'들이 '그곳에서' [→ '축삭 돌기 말단'에서] 주머니 모양의 '소포체'를 자극하면 '소포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한 종류인 '글루타메이트'가 흘러나와 '시냅스'로 방출된다.

➡ 2)에서 언급된 '칼슘 양이온'보다도 '글루타메이트'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정보의 전달'은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세포'에서 다른 '신경 세포'로 이동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 '글루타메이트'는 '시냅스'를 가로질러 '시냅스 후막' [→ 다른 '신경 세포'의 '가지 돌기'의 세포막]에 분포하는 여러 '수용체'들과 결합한다.

➡ 지금까지의 과정을 우선 정리해 보자.

신경 세포 간의 정보 전달
해마 신경 세포의 시냅스 전막에 정보 도달
↓
시냅스 전막의 칼슘 통로 열림
↓
시냅스 전막에 칼슘 양이온 유입
↓
글루타메이트가 시냅스로 방출
↓
글루타메이트가 다른 신경 세포 시냅스 후막의 여러 수용체들과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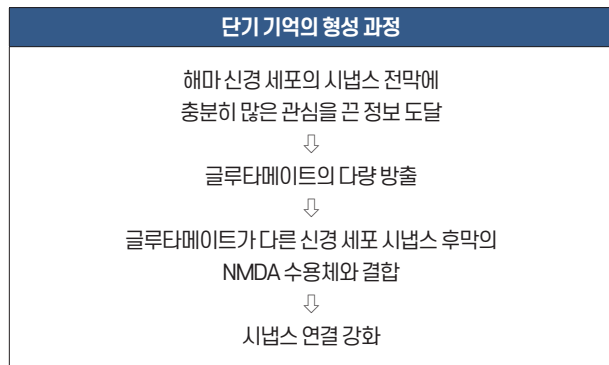
5) 그런데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끈 정보여서 '글루타메이트'

이트의 방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시냅스 후막에 있는 **NMDA 수용체**와도 결합하는데, 이 결합은 신경 세포 간의 연결인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단기 기억**이 형성된다.

➡ 모든 정보가 '단기 기억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오직 충분히 많은 관심을 끈 정보여야 한다.

6) 이 상태에서 해당 신경 세포들에 전류가 흐르면 **단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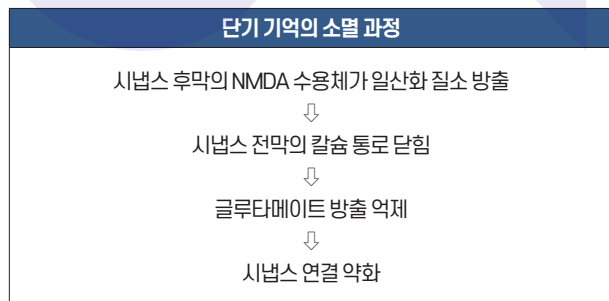
➡ 단기 기억이 형성된다는 것은 결국 특정 정보에 의해 두 신경 세포 간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문단 3 단기 기억의 사라짐

이렇게 단기 기억이 형성되고 나서 잠시 뒤 **NMDA 수용체**는 기체성 신경 전달 물질인 **일산화 질소**를 방출한다. 일산화 질소는 시냅스 전막의 칼슘 통로를 자극하여 닫음으로써 글루타메이트의 방출을 억제하는데, 이를 통해 **시냅스 연결이 약화되어 단기 기억이 사라진다**.

➡ 문단2-1)에서 언급한 대로 단기 기억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라진다. 이는 문단2-6)에서 정리한 '단기 기억의 형성 과정'과 정반대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문단 4 장기 기억의 형성

1) **단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정보에 주의가 집중되면** 해당 정보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작용에 의해 **대뇌 전두엽**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 총 세 가지 정보를 쟁겨야겠다. 첫째, 단기 기억은 사라지기 전에 다시 집중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둘째, 장기 기억의 형성에는 글루타메이트, 일산화 질소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 '도파민'이 관여한다. 셋째, 장기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는 측두엽이 아니라 전두엽이다.

2) 보통 장기 기억과 관련된 **도파민**을 방출하는 신경 세포의 세포체는 **해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뻗어 나와 **전두엽**으로 이어진 **축삭 돌기 말단**은 전두엽의 신경 세포들과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다.

➡ 헛갈리기 쉬우니 집중하자. 장기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는 전두엽이 맞지만, 그것에 관여하는 도파민이 방출되는 신경 세포의 세포체는 해마에 위치한다.

➡ 해마 신경 세포의 축삭 돌기가 전두엽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 축삭 돌기 말단 [→ 도파민이 방출되는 곳]이 전두엽의 신경 세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파민이 전두엽에 방출될 수 있는 것이다.

3) 장기 기억이 형성되려면 시냅스 전막이 평소 소량으로 일정하게 방출하던 도파민을 순간적으로 다량 방출하여 인근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도파민의 농도가 평소보다 높아지면** ……

➡ 평소에도 도파민은 조금씩 방출되고 있었나 보다. 그러나 단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가 집중되면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다량 방출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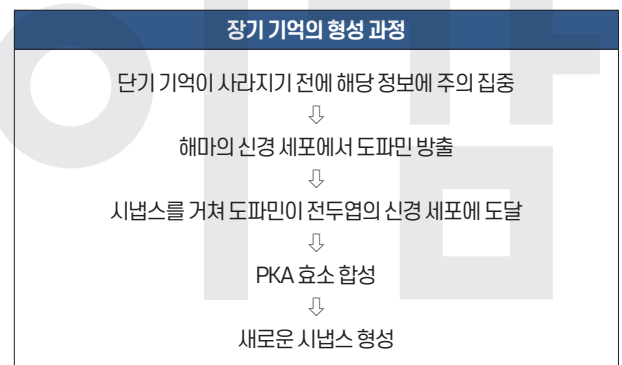
4) …… 도파민은 **전두엽**에 세포체를 둔 여러 신경 세포의 시냅스 전막과 시냅스 후막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들과 결합하여 ……

➡ 측두엽에 세포체를 둔 신경 세포의 시냅스 전막으로부터 방출된 도파민은 전두엽에 세포체를 둔 신경 세포의 도파민 수용체들과 결합하는데……

5) …… PKA 효소를 합성한다. 각종 단백질에 인산을 결합시켜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작업을 하는 **PKA 효소**에 의해 전두엽의 여러 신경 세포들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축삭 돌기 말단과 가지 돌기**가 생성된다.

➡ 도파민이 전두엽의 신경 세포들에 전달되면 그로 인해 'PKA 효소'들이 합성된다. 중요한 건 PKA 효소에 의해 해당 신경 세포들에 새로운 축삭 돌기 말단과 가지 돌기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즉 신경 세포가 변형되는 것이다.

6) 이렇게 생성된 것들이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함으로써 정보가 장기 기억의 형태로 전두엽에 저장되고 해당 신경 세포들에 전류가 흐를 때 장기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 **주목** 단기 기억의 경우 이미 존재하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는 반면, 장기 기억의 경우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된다.

7) 한편 전두엽에서 장기 기억과 무관하게 도파민이 과잉 방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과잉 방출된 도파민은 **해마에서 글루타메이트와 NMDA 수용체 사이의 결합을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

➡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 기억이 형성될 수가 없을 테니, 당연히 장기 기억도 형성될 수가 없겠다.

[18~21] 고전시가

(가) 「고공답주인가」 이원익

작품 평가

이 작품은 허전의 「고공가」에 화답하여 지은 교훈 가사이다. 「고공가」와 마찬가지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빗대어, 나라의 살림살이를 우의적 수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임진왜란 이후 쇠락한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 주목하여, 해야 할 책무는 저버린 채 당쟁만 일삼는 무능한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고공가」가 주인의 입장에서 종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작품은 종의 입장에서 다른 종의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주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고칠 것을 충언하고 있다.

우리 댁 세간이야 예부터 이렇던가

➡ 예전 주인집의 살림살이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는 말이다. '우리 댁'을 국가에 대한 우의적 표현으로 보면, 나라가 과거에 비해 쇠락했다는 작가의 시대 인식이 엿보인다.

전민(田民, 논밭과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많단 말이 온 나라에 소문났는데

먹고 입고 드나드는 종이 백여 명 넘는데도

➡ '전민'과 '종'이 많다는 것은 집안 살림을 일으킬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무슨 일 하느라 뒷발을 묵혔는가

➡ 묵힌 '뒷발'은 주인집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데, 국가적 위기 상황의 우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음에도 나라 살림을 염려하며 행기는 신하가 하나 없다는, 작가의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농장(農莊, 권세가들이 소유하고 있던 대규모의 토지)이 없다는가 호미 연장 못 가졌던가

➡ 농사지를 너른 땅도, 도구도 다 갖추고 있음은 강조하며 '종'들이 농사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변명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지적한 말이다.

날마다 무엇 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 '밥 먹고' 하는 일 없이 '낮잠만 자는' 종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나랏밥을 먹으면서도 나랏일을 등한시하는 신하들에 대한 우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이 집 이리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가

➡ '이리되기'는 집안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화자는 '뉘 탓'이라는 말로 집안 형편이 기울게 된 책임의 소재를 따져 보려는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 집안이 어렵게 된 상황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일에서 '생각 없는 종'은 일단 제쳐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이 '주인'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주인님 탓이로다

내 상전 그르다 하기 종의 죄 많건마는

➡ '상전 그르다' 하기 전에 '종의 죄'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상전'의 잘못을 직접 거론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하나 세상 보기 민망하여 여쭙나이다

➡ 충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함을 표현한 것이다.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 '새끼 꼬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새끼 꼬기'는 이 작품이 「고공가」에 대한 답가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이해할 수 있다. 「고공가」의 '주인'은 새끼를 꼬면서 '고공'의 잘못과 무능력을 비판하는데, 이 작품은 '종'의 입장에서 「고공가」의 '주인'을 향해 말을 건네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집안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으시고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려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 연쇄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로써 사상이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되는 효과가 생겨난다.

➡ 화자가 '상전'에게 하는 충언의 핵심이 담긴 구절이다. '어른 종'은 '종'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우두머리일 텐데, 작가와 같은 조정의 종신들을 의미한다. 결국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임금이 자신과 같은 대신들의 간언을 믿고 채택해 주면 집안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난다.

진실로 이리하시면 가도(家道, 집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 절로 일리이다

➡ 종들을 휘어잡는 것이나 상벌을 밝히는 것은 결국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화자는 이로써 어려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감

(나) 「향산별곡」 작자 미상

작품 평가

백성을 중시하고 보살피는 것이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됨을 강조하며 '죽어 가는 백성'을 건져 달라고 임금께 탄원하고 있다. 아울러 나랏일을 등한시하면서 당쟁만 일삼는 조정 대신들을 비판하고 있다.

기험 산천(崎險山川) 밋지 말고 죽어 가는 백성 건지소서

▶ 나라를 방비하는 데 험한 산천의 도움보다는 나라를 지킬 백성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백성을 중시하여 아끼고 보살피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 급선무라는 거다.

▶ '죽어 가는 백성'은 관의 수탈로 죽음에 내몰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건지소서'라는 극존칭을 사용한 데에서, 이 대목이 임금을 향한 탄원의 말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작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향촌 백성들의 괴롭고 고달픈 현실이아말로 국가적 위기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은덕(恩德) 쌓여 뫼가 되어 곤륜(崑崙)같이 높아지고

은택(恩澤) 흘러 물이 되어 하해(河海)같이 깊어지면

▶ '은덕'이나 '은택' 같은 추상적 개념을 각각 '곤륜[산]같이 높아지고', '하해같이 깊어진다'고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대립도 보이고, 비유법과 과장법이 쓰였다.

높은 뫼 너른 물을 그 뉘라서 대적할꼬

▶ 임금이 베푸는 '은덕'과 '은택'이 '기험 산천' 대신에 외적의 침입을 막는 요새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임금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앞장서 나라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아국(我國) 백성 물론하고 타국 생민(他國生民) 다 오리라

▶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들까지 임금에게 마음을 바치며 순종해 올 것이라는 뜻이다.

동서남북 사방 민심 임금께 다 순종(順從)하면

오랑캐 비록 강대하나 저를 어이 두려워하리까

▶ 민심을 얻는 것이, '오랑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관건임을 강조한 말이다.

(중략)

조정(朝廷)에 계신 분네 이내 말씀 들어 보소

▶ 조정 대신들을 향한 말인데, '들어 보소'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상대를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 의식(衣食) 입고 먹고 무슨 일들 하시는고

▶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들이 나라를 위한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궁궐 입시(入侍) 하는 날에 요순 도덕(堯舜道德) 아뢰신가

▶ 조정 대신들이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만날 때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덕에 관한 얘기를 하는지는 묻는 말로써, 신하들에게 임금을 '요순'과 같은 성군이 되게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참고 '요순'은 어진 임금. 나이가 태평성대의 대명사이다.

상소(上訴) 대계(臺啓, 벼슬아치의 잘못을 임금에게 보고하던 글) 하는 때에 보민 모책(保民謀策, 백성을 보호하여 편안하게 할 대책) 아뢰신가

▶ '상소'나 '대계'에는 다른 벼슬아치들의 잘못을 보고하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이 구절은 다른 신하들의 잘못을 들추거나 비판하는 일 못지않게 백성들을 보호하여 편안히 살 수 있게 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함을 환기하고 있다.

한가한 때 때를 타서 위국 원려(爲國遠慮, 나라를 위해 먼 앞일까지 미리 잘 헤아려 생각함) 못 하신가

▶ 한가한 때에도 '위국 원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무라는 말이다.

저 당전(黨戰, 당파 사이의 지속적인 싸움)을 저리 익혀 남정북벌(南征北伐,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토벌함) 가려는가

▶ '남정북벌'하려고 '당전'을 일삼는 거냐는 비아냥거림이다. '당전'이 국력을 기르는 데에는 아무 쓸모가 없음을 비꼰 것이다.

전자 전손(傳子傳孫, 자손들에게 전함) 힘써 하되 병법(兵法) 잇는다 못 들었네

▶ 당파의 권력이나 인맥, 당쟁의 기술 등을 자손들에게 전해 주는 일에만 힘을 기울이고 정작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법을 전수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고 꼬집는 말이다.

나는 보니 쓸데없데 국가에 해(害)될 뿐이로세

▶ 당쟁에만 몰두하는 대신들의 행태가 나라에 해만 끼칠 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대신들의 행태를 두루 살피고 난 뒤 화자가 내린 결론이겠다.

+ 참고 자료

• 이해와 감상

「향산별곡」은 「거창가」와 함께 대표적인 현실 비판 가사로 꼽히는 작품이다. 19세기 시골의 한 유생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오랑캐인 청나라를 배격하고 명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를 바로잡자는 보수적 중화 의식을 주장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지만 삼정(三政, 토지세, 군역, 양곡 대여 및 환수)과 관련된 관리들의 부패와 타락상을 비판하며 이로 인한 백성들의 유리결식과 피폐해진 삶의 참상을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